Taras Bulba

- □□

정보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Leoš Janáček (1854–1928)
작품명	*Taras Bulba*, JW VI/15
장르	관현악 랩소디
원작	Nikolai Gogol의 소설 *Taras Bulba*
작곡 ·개정	1915년 착수 , 1918년 최종판 완성
초연	1921년 10월 9일 Brno National Theatre, František Neumann 지휘
구성	세 개의 표제 악장

IMSLP: Taras Bulba (Janáček, Leoš)

Wikipedia: Taras Bulba (rhapsody)

Janáček의 *Taras Bulba*는 Gogol의 코사크 전쟁 소설 전체를 서술하는 교향시가 아니라 , Andriy, Ostap, Taras Bulba의 죽음을 각각 다룬 세 악장의 관현악 랩소디다 . 첫 악장은 사랑과 배신으로 맞는 Andriy의 죽음 , 둘째 악장은 포로가 된 Ostap의 처형과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고통 , 셋째 악장은 Taras의 처형과 예언을 차례로 놓는다 . 세 장면은 원작의 모든 사건을 재현하기보다 서로 다른 죽음의 상황을 독립된 음악적 장면으로 압축한다 .

창작 ·초연 ·출판

Janáček은 제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작품을 시작했다 . Janáček Foundation은 1915년 1월 착수와 같은 해 7월의 개정을 기록하고 , 1918년 3월 29일 최종판이 완성되었다고 세분한다 . Janáček 공식 작품 목록은 이를 1915년 작곡과 1918년 개정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

초연은 1921년 10월 9일 Brno National Theatre에서 National Theatre Orchestra와 František Neumann의 지휘로 열렸고 , Janáček도 그 공연에 참석한 것으로 Foundation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 출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Břetislav Bakala의 피아노 네 손 편곡이 1925년에 먼저 나왔고 , Hudební matice Umělecké besedy의 총보가 1927년에 출판되었다 . IMSLP는 작품의 헌정을 `To our troops`로 기록한다 .

소요 시간

세 악장을 모두 연주하면 약 22~25분이 걸린다. Janáček Foundation과 LA Philharmonic,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은 약 23분을 제시하고, IMSLP는 평균 22분으로 분류한다. 템포와 판본에 따른 작은 차이가 있으므로, 공연 시간은 약 23분이라는 범위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편성

관현악 편성에는 플루트 3(제 3은 피콜로 겸함), 오보에 2와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와 E-flat 클라리넷, 바순 3(제 3은 콘트라바순 겸함),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가 포함된다. 팀파니와 종, 심벌즈, 작은북, 트라이앵글 등의 타악기, 하프, 오르간, 현악기가 뒤따른다. 자료에 따라 오보에와 클라리넷의 주자 수를 겸주까지 세어 다르게 적으며, 실제 파트 배치는 사용하는 총보의 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오르간은 세 악장 전체에 고르게 쓰이는 악기가 아니라 마지막 장면의 음향을 바꾸는 악기다. 금관, 종과 함께 등장할 때 Taras의 개인적 죽음이 예언의 장면으로 넓어지는 효과를 만든다. 이 악기 배치는 극장용 소규모 반주가 아니라 독립된 관현악 랩소디를 전제로 한다.

세 죽음 장면의 진행

I. The Death of Andriy

Andriy는 폴란드 소녀를 사랑한 나머지 코사크 편을 떠나고, 전투에서 아버지 Taras와 맞선다. LA Philharmonic의 작품 해설은 잉글리시 호른과 바이올린, 오보에의 선율을 이 사랑의 상황과 연결하며,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다가오는 재난을 알린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악장의 중심은 전투의 외형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적 선택이 아버지의 처벌로 바뀌는 순간에 놓인다.

II. The Death of Ostap

Ostap은 전투 뒤 포로가 되어 Warsaw에서 처형되고, Taras는 변장한 채 군중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Londo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은 폴란드인의 축하를 마주르카로 , 죽음의 고통을 E-flat 클라리넷의 날카로운 음색으로 설명한다. 공개된 축하와 아버지가 감추어야 하는 슬픔이 한 악장 안에서 맞물리면서 , 처형은 군중의 spectacle과 사적인 비탄을 동시에 갖는다.

III. The Prophecy and Death of Taras Bulba

Taras는 아들의 죽음 뒤 복수를 벌이다 붙잡혀 화형을 선고받는다 . LA Philharmonic은 이 악장이 짧은 회상과 춤의 조각, 반복되는 현악 동기, 종과 오르간을 거쳐 장엄한 종결로 나아간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의 금관과 오르간은 처형당하는 인물의 시점을 넘어 미래의 승리를 예언하는 목소리를 만든다. 그 예언은 Gogol 원작의 서사와 1915~1918년 Janáček이 처한 전쟁 ·민족적 맥락이 만나는 지점으로 읽힌다.

표제와 역사적 맥락

Janáček은 이 작품을 rhapsody 라고 불렀지만 세 개의 표제 악장을 분명히 구분했다. 자유로운 장면 병치와
짧은 동기의 반복이 소설의 연속적인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대신 세 인물의 운명을 나란히 보여 준다. 1915년의 작업 중단과 1918년의 최종판 완성은 전쟁기의 정치적 환경과 겹치며, Janáček이 러시아 문학과 범슬라브적 상상에 관심을 두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Gogol의 코사크 서사와 작품에 적힌 헌정 문구는 당시의 민족 ·전쟁 담론을 반영하지만 , 이를 현재의 정치적 주장으로 곧바로 옮길 수는 없다. Brno와 학술 자료가 다루는 출판 협상과 초기 재공연의 맥락까지 함께 보면, 이 음악의 장엄한 마지막 예언은 원작의 영웅 서사, Janáček의 선택, 전쟁기 체코의 정치적 경험이 겹친
결과로 이해된다.

판본과 연주 자료

Janáček 공식 목록과 Foundation은 1915년 초안, 1918년 최종판, 1925년 피아노 네 손 편곡, 1927년 총보라는 큰 흐름에서 일치한다. 1927년 표기를 별도의 개정판으로 볼지 출판 총보의 수정으로 볼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르며, 실제 연주에 쓰이는 판본은 서문과 파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1980년 Supraphon 비평판이 공식 목록에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판본 계보의 한 지점이다.

LA Philharmonic과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세 악장의 줄거리와 잉글리시 호른, E-flat 클라리넷, 마주르카, 오르간 ·종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이 자료는 표제만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악기별 장면 전환을 보완하지만 , 각 기관의 프로그램 노트가 제시하는 해석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 자료는 총보에
없는 상징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해당 악기가 어느 죽음의 장면과 결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주요 자료

Leoš Janáček 공식 작품 목록, 관현악 작품

Janáček Foundation, Taras Bulba

Los Angeles Philharmonic, Taras Bulba 작품 해설

London Symphony Orchestra, Taras Bulba 프로그램

Musicologica Brunensia, Janáček와 Taras Bulba 연구